

알제리의 사헬(Sahel) 안보 정책에 관한 연구*

이한규 한양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는 알제리의 지전략(geostrategy)이 사헬-사하라 안보 확립의 주요한 변수라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사하라 사막 가운데 있는 사헬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척박하고 반정부 무장 단체, AQMI 같은 지하디스트 테러, 불법 이주 및 난민, 인신 및 마약 밀매 등이 여러 국가에 걸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석유자원국이며 군사 강대국 알제리는 말리, 리비아, 니제르, 튀니지 등과 총 4,279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또한,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그레브의 이슬람 문화와 사하라 이남의 기독교 문화와의 융합을 이끌 수 있는 지정학 중심이다. 따라서 알제리의 사헬 안보 정책은 서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안보 확립 및 지역통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알제리의 대 사헬 안보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패했으며, 전통적으로 유지하였던 주변 국가와의-모로코 제외-관계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알제리는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구축할 명확한 지정전략적 비전이 없었으며, 특히 사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외교'가 아닌 '정권 외교'였다. 이로 인해 사헬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5 사헬에 불참하고 있는 알제리는 사헬 이웃 국가에 의해 그 어느 때 보다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테본(Abdelmadjid Tebboune) 신정부의 대 사헬 정책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알제리, 안보 정책, 지정학, 사헬, G5 사헬

* 본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70773).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리비아의 카다피(Muammar al-Gaddafi) 정권 붕괴로 인해 알제리는 사실상 마그레브 지역에서 모로코와 경쟁하는 중요한 리더 국가가 되었다. 더욱이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중요한 석유 생산국이며, 지정학적으로는 모로코처럼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 국가이다. 그러나 이슬람 테러의 진원지였던 알제리는 국내외적으로 지하디스트 테러(특히 이슬람 마그레브의 알카에다, AQMI)와의¹⁾ 전쟁을 힘겹게 치르고 있다. 특히 리비아 국경 지역과 여러 테러 집단의 은신처 역할을 하는 알제리 남부지역에서의 불안은 당사국은 물론 마그레브와 사헬 안보 불안의 요인이다.

사헬지역에는 30개 이상의 반정부 무장단체와 지하디스트 단체가 마그레브와 사헬에 걸쳐있는 3,651km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최근에는 일부 지하디스트가 연합하면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반군 및 이슬람 테러 단체 소탕과 국경 지역개발을 위해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은 일부 사헬 국가는 다자협력기구 'G5 사헬'(Groupe des cinq pour le Sahel, G5 Sahel)을 2014년 2월 14일 창설했다.²⁾ 게다가 2017년 사헬 합동군(이하 'FC-G5S')을³⁾ 별도로 창설하여 새로운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헬 안보 문제로 인해 알제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가 새로운 글로벌 전략 틀에서 지정학적(Geoeconomics) 재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사헬지역이 처한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

1) 알케에다이슬람마그레브지부(Al-Qaïda au Maghreb islamique,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AQIM).

2)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차드.

3) Force conjointe du G5 Sahel(G5 Sahel Joint Force).

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Sahel-Elite 2018). 예를 들어, 국제 테러리즘, 인신매매, 마약과 돈세탁을 통한 범죄조직에 대한 대처, 불평등 종식 등은 국제사회와 사헬 국가들의 안보 확립에 필요한 핵심적인 공동 요소다.

알제리는 지정학적으로 G5 사헬 국가 중 3개 회원국(모리타니, 말리, 니제르)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 대부분에는 지하디스트들이 할거한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군비 지출이 많은 알제리는 G5 사헬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주변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알제리는 안보 측면에서 지역 패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직된 외교 노선, 구 식민종주국 프랑스에 대한 민감한 반감, 서사하라와 관련한 모로코와의 갈등 등이 지역 안보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 강대국 알제리가 G5 사헬에 참여하지 않는 결정적인 국내외적 요인은 무엇이고, 알제리가 추구하는 사헬 안보의 방향과 목적이 사헬 안보 확립을 위해 현실적인가에 반문한다. 그리고 알제리가 불참한 상태에서의 G5 사헬 회원국은 안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자문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알제리뿐만 아니라 G5 사헬 회원국 그리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가 해결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알제리의 안보 정책을 사헬지역의 틀에서 분석하고, 재조명한다. 21세기 들어 국제사회는 ‘경성 안보’보다 ‘연성 안보’를 강조하지만, 사헬지역은 여전히 ‘경성 안보’가 강조되는 지정학 환경에 있다. 특히 테러리즘과 지역적 불안에 맞서는 중요한 지역 행위자인 알제리는 마그레브와 사헬-사하라 안보를 위해서 AU, 미국, 러시아, 프랑스 및 유럽연합의 중요한 교섭 국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연구는 알제리의 지전략(geostrategy)이 사헬-사하라(Sahel-Sahara) 안보 확립의 주요한 변수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알제리의 지정학적 개념과 의미를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사헬의 지정학적 환경을 살펴본다. 물론 지정학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지만, 알제리의 사헬 대외 정책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사헬 외교와 관련한 지정학적 특징

에 한정하여 논한다. 제3장은 본 연구의 핵심으로 사헬 중심의 알제리 대외정책을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논한다. 이를 통해 알제리 사헬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제4장은 G5 사헬 출범 환경과 특성을 살피고, 이에 따른 알제리의 사헬 안보 정책을 분석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사헬 안보를 위한 알제리의 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해 본다.

2. 선행연구

마그레브 지역에서 대표적인 불어권 이슬람 국가 알제리에 관한 해외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지만, 국내연구는 매우 미진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은 국내연구의 양적·질적 연구 향상을 위해 알제리 외교정책 혹은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알제리에 관한 국내연구는 1998년 이후 2019년까지 등재지·등재 후보지에 총 123편이 게재되었으며, 이 가운데 39편(26.5%)이 사회과학 분야이지만, 마그레브 및 사헬지역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논문은 총 5편이다(이한규 2020, 106).⁴⁾

김태수는 두 편의 논문을 생산하였는데 프랑스와 미국과의 관계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국제관계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다. 특히 2014년에 출판한 논문은 미국과의 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였다(김태수 2014). 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자원에 대한 통제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사헬 안보 문제에 대한 알제리와 미국과의 관계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EU 관계를 조명한 오창룡은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EU와의 협력관계를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한다(오창룡 2016).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의 알제리 외교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국내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국내 정치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필

4)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총 82편으로 마그레브 국가 중에 제일 많은 논문이 생산되었다.

자가 주장하는 알제리의 '정권 외교'(regime diplomacy) 일면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알제리와 관련한 EU의 사헬 안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김희정·황의갑은 유럽연합의 대 마그레브 전략을 재조명하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마그레브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마그레브 정책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했다(김희정·황의갑 2016). 끝으로 임기대는 '마그레브-사헬'이라는 지역 문제를 프랑스와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사하라 개요, 프랑스의 식민지배와 잔존 문화 그리고 군사적 개입, 안보와 평화 문제 등이 주요 키워드라는 점에서 마그레브-사하라의 전체 상황에 도움을 주었다(임기대 2019). 그러나 알제리가 사헬 안보의 핵심이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

이처럼 사헬 안보와 관련한 국내의 알제리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 대부분은 알제리의 사헬 안보 문제보다는 유럽 국가 혹은 미국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임기대 논문(2019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 이전에 생산된 논문들이다. 현재 사헬의 안보 상황이 매일 급박히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알제리 외교정책에 관한 본 연구가 주는 학문적 시사점은 매우 클 것이다. 물론 본 연구는 현지 조사가 아닌 기존 연구와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가 있다. 하지만 마그레브, 특히 알제리의 사헬 안보 정책과 G5 사헬에 대한 토대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II. 알제리와 사헬 지정학

21세기 국제관계는 탈 국경적 다자주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외교는 탈국경적 다원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중심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은 국력도 있지만, 국가의 고유한 지정학적 위치다(Flint 2006). 지정학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강대국들이 군사적 영향력 유지 및 확산과 지역적 견제 및 고립 정책

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분이었다(전용 1997).⁵⁾ 하지만 21세기 지정학의 접근은 더는 군사적 압력을 통한 영향력 확보와 견제보다는 초국경적 불법 이주, 환경, 테러 등으로 인접 국가 간의 ‘초국경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전통적인 절대적 국경의 정의와 역할이 점차 변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남호엽은 한 국가의 “비전은 주어진 소여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구성물이다. 따라서, 지정학 비전의 재현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개입할 수 있으며, 일정한 관계 설정과 의미 추구의 전략이 표출”되고 있음을 강조한다(남호엽 2011, 377). 이러한 점에서 이슬람 국가 알제리는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그레브의 이슬람 문화와 사하라 이남의 기독교 문화와의 융합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이 가능하며, 사헬지역 협력 문제와 연동될 수 있다. 더욱이 사헬은 알제리를 포함한 마그레브 국가 및 유럽 국가들과의 안정적인 협력 그리고 사하라 이남 국가와의 협력 구축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 중심이다.⁶⁾

중세 알제리의 이슬람 아브달와디데(Abdalwadides) 왕조는 사헬지역의 제국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Sellier 2003). 하지만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과 프랑스 문화가 교묘하게 교차·혼성하는 혼란이 1962년 독립 이후에도 지속한다. 프랑스는 동화정책을 통해 알

5) 지정학과 관련해서는 Defarges, Philippe Moreau. 『공간과 권력의 정치학』. 이대희·최연구 역. 1997. 서울: 새물결; Pascal Boniface. 『지정학으로 바라본 1945년부터 오늘날까지의 국제관계』. 정상필 역. 2016. 서울: RSG(레디셋고); Mackinder, Halford J. 『심장지역론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염동룡 역. 1998. 서울: 동우사; Mahan, Alfred T. 『해양세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김주식 역. 1999. 서울: 책세상; Spykman, Nicholas. 1944. *The Geography of the Peace*, San Diego: Harcourt Brace & Co; Flint, Colin and Taylo, Peter. 2011. *Political Geography: World-economy, Nation-state and Locality*. London: Routledge 등 참조.

6) 알제리의 지정학이 외교정책에서 주는 의미는 중요하지만, 지면 제한과 본 연구가 알제리의 대 사헬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국내에 생소한 사헬의 지정학적 환경 특징에만 주목하였다. 따라서 알제리와 사헬의 지정학 문제는 “(가제) 마그레브 지정학과 안보 전략”이라는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리를 자신들의 도(道)로 편입시켜 할 만큼 지정학적 가치로 중요했다 (Yacono 1992). 이로 인해 알제리는 아프리카에 가장 고통스러운 독립투쟁을 겪어야 했다.⁷⁾

1990년대 이후, 산유국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의 중추국으로 지역안정과 주변국(주로 리비아, 말리)에서 활동하는 지하디스트 테러를 방어하는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알제리는 자국에 대한 외부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원 문제가 얽히면서 복잡해졌다. 20세기 말부터 선진국 대부분은 천연자원(석유, 목재, 광물, 원자재 등) 확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 이익에 반하는 정권은 교체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정치 지도자 대부분은 신자유주의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졌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가 무역, 자본 흐름 및 상품의 세계화로 특징지어졌다. 반면, 아프리카 경제발전은 서구의 자원개발 모델에 적응하는 것이다(Ekanza 2014). 이러한 세계화는 금융의 국제화, WTO를 통한 세계화된 거버넌스를 유도했다. 이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에서 다국적 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재정복과 자원개발을 통해 선진국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 저항 혹은 방해했던 많은 국가-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수단,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는 불행히도 국가로서의 존재를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알제리 또한, 반서구적 경향, 서구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지전략 위치와 국경 밖의 개입 거부 등으로 잠재적인 표적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알제리는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선린관계보다는 마그레브와 사헬지역에서의 유럽, 특히 프랑스 영향력 배제 정책을 거의 반세기 동안 유지했다.

오늘날 국제관계는 이념을 떠나서 새로운 이해관계의 시너지가 있을 때 단결하고 공동 대의를 만든다. 이해관계의 시너지는 동시에 다른 상황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으며 때로는 다른 주제에 대해 지혜로운 방식

7) 알제리는 1954년부터 본격적인 독립투쟁을 하였으나 1962년 7월 5일 독립했다. 이 기간에 250만 명의 알제리인과 2만 5천 명의 프랑스군이 사망하였다.

으로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능한 최상의 조건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해당 지역, 예를 들어 사헬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도전과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은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외 영향력 및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고, 주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현재 마그레브와 사헬의 지정학적 환경이다(Newman 1996).

<그림 1> 알제리와 주변국



출처: <https://africa.cgtn.com/2018/01/26/crash-between-bus-and-taxi-kills-14-in-algeria/>(최종검색일: 2021.06.04.)

알제리 국경의 북부는 지중해, 동부는 리비아와 튀니지, 서부는 모로코, 남부는 모리타니, 말리 및 니제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2,380,000km² 광대한 면적의 알제리는 자원 부국으로 북아프리카에서는 대국이다. 하지만 알제리의 국경밖에는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복합적이고 위협적인 요인이 많으며, 국내정세는 여전히 불안하다. 알제리의 이슬람무장단체(Groupe islamique armé, GIA)가 말리 북부의 산악과 변경에서 활동한다. 더욱이 이 지역은 카다피 정부에서 용병으로 활동했던 투아레그 분리주의자들이 은거하며⁸⁾ 지하디스트와 경쟁 혹은 '위협

한' 연대를 하고 있다. 총 4,279km의 알제리 국경은 말리와는 1,376km, 리비아와는 982km, 니제르와는 956km, 튀니지와는 965km를 마주한다.

카다피 정권이 붕괴하기 전에도 사헬 국경은 무장단체 및 지하디스트와 밀수업자들이 정착하여 중앙정부의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다. 더욱이 카다피 정권이 붕괴하면서 15,000개의 지대공 미사일과 각종 무기가 사라졌고, 이로 인해 리비아, 말리, 니제르 및 알제리 남부에는 새로운 안보 불안이 급증했다(Larémont 2013). 특히 사헬지역의 안보 불안으로 인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불법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⁹⁾ 북아프리카와 사헬 국가들의 국경통제는 대부분 허술하며, 이주자 일부가 테러 단체에 합류한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의 이주 흐름은 지중해 경제 및 인간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유럽은 인간안보의 불안정 원인인 불법 이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아프리카, 특히 마그레브와의 관계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Biad 2013). 더욱이 알제리는 사헬-사하라 안보와 유럽의 인간안보 확립에 영향을 주는 지정학 중심에 있다(Aïde Ammour 2012, 2).

워싱턴 근동 정책 연구소(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 WINEP)의 2017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를 단순한 원조 수혜국이 아닌 에너지 부문, 산업, 농업 등에 투자할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미국은 사헬의 군사 및 치안 문제를 ECOWAS와 프랑스에 위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알제리도 전략파트너에 포함되었다(김태수 2014, 122). 미국은 사하라 횡단 대테러 파트너십(군사 훈련 프로그램) 및 기타 비군사적 지원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테러와의 전쟁 경험이

8) 약 200만 명의 투아레그 민족이 세네갈, 기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나이지리아, 차드, 카메룬에서 소수 민족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정부에 비우호적이다. 이들은 2~3개 국경에 걸쳐 거주하고 있어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지하디스트와 연계되어 국경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한다(Claudot-Hawad 2006, 222).

9) 2020년 기준으로 G5 사헬 회원국의 난민은 약 3백만 명이지만, 불법 이주민까지 합치면 두 배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풍부한 알제리에 관한 관심이 높다(Benderra 2018). 특히 미국의 사헬 정책은 소말리아와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처럼 사헬이 지하디스트 세력의 영역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제리의 지정학 위치와 군사적 행동은 미국의 사헬 전략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Kandel 2017, 184-185).

알제리는 이슬람 회의기구, 아랍 연맹,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 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등과 같은 여러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알제리 군비는 G5 사헬 모든 회원국 예산의 6배가 넘는다¹⁰⁾. 하지만 사헬지역 국가들이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 군사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이는 오히려 알제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알제리는 오랫동안 마그레브와 사헬지역에서 테러리즘에 맞서 싸웠다는 점에서 지중해와 아프리카 지역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알제리는 사헬 안보 문제 있어서 마그레브 국가와 사헬 국가들이 공감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협력에 있어서 알제리의 신뢰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헬 국가들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아프리카의 민감한 지역과 지리경제적 지역의 재구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III. 알제리의 대(對) 사헬 외교

1. 반서구주의와 비동맹 외교(1962-1979)

1962년 독립한 알제리 대외정책의 최우선은 국내안정이며, 이를 위해 식민종주국 프랑스와의 거리 두기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프랑스에

10) 알제리와 G5 사헬의 군사력 세계순위는 알제리 28위, 차드 87위, 말리 96위, 부르키나파소 97, 니제르 103위, 모리타니 129위다. 알제리는 전투기 450대와 헬리콥터 210대를 보유하고 있다(Global Firepower 홈페이지 참조).

여전히 종속되어 있고, 완전한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한 알제리는 프랑스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 1962년에서 1965년까지 과도기를 거쳐,¹¹⁾ 1965년부터 1978년까지 집권한 부메디엔(Houari Boumédiène 혹은 Mohammed Boukharoba)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반서구 전선’ 형성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Abdelkader 1996; Daguzan 2015, 32). 이 정책은 전 대통령 벨라 (Ahmed Ben Bella)의 대외정책을 계승하는 것이지만, 아랍 및 비동맹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Belkaïd 2009, 328).

부메디엔 외교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국가 독립 유지, 모든 형태의 외세 개입 거부, 알제리에 대한 외국 군사기지 불허 그리고 지역 또는 군사 동맹의 거부다(Grimaud 1984). 알제리는 반서구 정책 일환으로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지향했으며 중국, (구)소련, (구)유고슬라비아, 쿠바 등과 같은 반서구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알제리 보안군은 쿠바 정권과 동맹을 맺은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에 훈련과 장비를 지원했고, 알제리 영토를 훈련 및 작전 기지로 제공했다. 이외에도 남아공의 만델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정권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이처럼 부메디엔 정권은 비동맹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이에 관련된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하며 1974년 제6회 유엔특별총회(자원총회)에서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선언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당시 식민지배하에 있거나 종속된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해 알제리가 구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Belkaïd 2009, 338).

물론 알제리가 해외문제 불간섭 원칙을 완전하게 지킨 것은 아니다. 자국에 우호적이며 서구국가에 의해 피해 혹은 종속되어 있다고 여긴 국가에는 이슬람 ‘형제애’를 통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11)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국민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 FLN) 수장 벤 벨라(Ahmed Ben Bella)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965년 6월 19일 부메디엔의 쿠데타로 실권함.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국민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의 무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1967년과 1973년에 팔레스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직접 파견하였고, 1983년 이란과 이라크 간의 평화 협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처럼 서구국가와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면서 알제리가 추구하려는 것은 서구국가들이 마그레브와 아프리카 문제에 있어서 알제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재자(essential interlocutor)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다(Belkaïd 2009, 328). 이후, 알제리의 수도 알제(Alger)는 혁명, 범아프리카주의, 사회주의 운동의 도시가 되었고, 이곳에서 콩고, 앙골라, 나미비아, 로데지아 그리고 아일랜드 독립투쟁가들이 훈련을 받고 자금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1963년 알제리와 모로코 국경에 있는 탕두프(Tindouf)를¹²⁾ 두고 모로코와의 사막전쟁(Sand War) 그리고 1975년 12월~1976년 1월, 2개월간의 군사적 충돌 이후, 알제리의 사헬 안보 외교는 모로코와 연관된 서사하라 문제에 몰입한다. 첫째는 사헬에서의 모든 분쟁 책임을 모로코에 돌리는 것이다. 알제리의 대외정책 중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식민주의다. 그런데 서사하라가 유럽의 식민지배가 종식된 이후에도 모로코에 의해서 식민지처럼 강제로 점유되고 있다는 것이다(Mohsen-Finan 1999, 103). 둘째는 1976년 2월, 서사하라 지역 주민의 유일한 합법 정당인 폴리사리오전선(Front Polisario)이 세운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República Árabe Saharaui Democrática, RASD)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물론 모로코는 현재까지도 인정하지 않음). 비록 국제사회(국제연합)에서는 RASD를 합법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로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OAU)가 RASD를 OAU 회원국으로 받아드리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다.¹³⁾ 하지만, 부메디엔

12) 1950년, 이 지역을 프랑스가 알제리 영토로 편입하였으나 1956년 모로코가 프랑스로 독립하면서 뒤돌려 받기를 원하자 알제리와의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3)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전신인 OAU의 RASD 가입 승인에 불만을 가진 모로코는 1984년 탈퇴하였다가 27년만인 2011년 재가입하였다.

정부 말기의 외교정책은 국제사회 혹은 사헬지역이라는 큰 틀보다는 서사하로 문제로 모로코와의 ‘소모적’ 외교경쟁에 몰입함으로써 초기 대외정책의 방향을 유지하지 못했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 대외 이미지 회복과 지역 패권 외교(1980-2010)

국내안정과 경제발전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정한 벤제디드 샤들리(Bendjedid Chadli) 정부는 이전 정부의 중앙집권체제를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1989년 다당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1991년 대선에서 이슬람구국전선(Front islamique du salut, FIS)이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2차 투표에서 대승이 예상되었다. 이에 1992년 네자르(Khaled Nezzar) 장군은 쿠데타로 벤제디드 대통령을 축출했고, FIS를 불법 정치 단체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알제리는 1999년 4월 부메디엔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부테플리카(Bouteflika)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10년간 심각한 혼란과 정치 및 종교적 테러에 시달렸고, 그 후유증은 현재도 있다. 이 시기까지 알제리 외교의 4대 노선은 전반적으로 후퇴하거나 보류된다.

1990년 탈냉전의 알제리 대외정책 기조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한 고립에서 탈피하면서, 내부 갈등에 대한 외부(특히 서구)의 개입이나 간섭을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측면에서 알제리는 1994년 4월 IMF와의 구조조정 협정을 시작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모색함으로써 비동맹 외교는 사실상 퇴색했다. 또한, FIS 정당 지도자와 지지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마그레브 지역에서 알제리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Keenan 2012, 33). 이 기간에 알제리 대외활동은 1992년 군 쿠데타 이전보다 훨씬 덜 활동적이었으며 ‘저강도’ 외교를 유지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유지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도 소원했다(Benderra 2020).

국내 혼란과 이슬람 테러를 진압한 부테플리카 정부의 대외목적은

한편으로는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1990년 이전의 알제리 위상 회복이고,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시장에서의 알제리 지하자원의 수출 극대화를 통한 경제발전이다. 첫째는 ‘암흑의 10년’ 동안에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와 정적(政敵)에 대한 탄압과 인권 침해로 인해 불거진 알제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둘째는 알제리가 국제사회에서, 특히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알제리는 아프리카 다자협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2000년 알제에서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간의 평화 협정 체결 주선, 2001년 NEPAD 창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재정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Belkaïd 2009, 343; Aïda Ammour 2012).

반면 알제리는 식민지 피해의 역사적인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의 관계개선에서도 적극적이었다(Daguzan 1993, 886). 2000년 6월, 17년 만에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프랑스를 공식 방문했다¹⁴⁾. 그리고 2008년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가 제안한 지중해연합프로젝트(Projet d'Union pour la Méditerranée, UPM)를 수용하였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전환은 공교롭게도 2001년 9·11 테러가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다(Keenan 2012, 34-35).¹⁵⁾ 이슬람 테러리즘과의 전쟁 세계화는 국내 이슬람 테러로 이미 암흑의 10년을 보낸 알제리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 분야에서 알제리 안보 협력은 미국 정부에 의해 높이 평가되기도 했다. 2002년 12월 9일 알제리를 방문한

14) 이후 2003년 프랑스 대통령 시라크(Jacque Chirac)에 이어 2006년 사르코지(Nicolas Sarkozy)의 알제리 방문으로 두 국가 간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기대했지만, 프랑스가 알제리인에 대한 식민지 대학살에 관한 사과 거부로 관계 필요성만 재확인했다.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 방문한 올랑드 대통령(François Hollande) 역시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단지 ‘프랑스 식민지배의 부당함’만 인정했다. 반면, 현 대통령 마크롱은 2018년 처음으로 독립전쟁에서 숨진 알제리인의 죽음과 관련된 고문과 살해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15) 부테플리카 정부는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차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빠른 외교적 행보를 해왔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알제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오사마 빈라덴 및 이슬람 테러 단체(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1,350명의 외국인 명단을 제공했다.

북아프리카 및 중동 담당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 국무 차관은 “워싱턴은 테러와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 알제리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했다(Boutaud 2007). 사실 알제리에 대한 서방의 지속적인 불신은 2002년 미 국무 차관이 알제를 방문할 때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하지만 9·11 사태로 반(反)서구적 역사와 경향이 있는 국가로 알려진 알제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논리를 정당화하는 기회다. 예를 들어, 마약 및 불법 무기 단속 등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알제리는 미국과 오래 공조할 수 있었다(Mesdoua 2014). 이처럼 미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는 알제리를 국제 사회에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Zoubir 2009), 다른 한편으로는 마그레브, 사헬지역과 아랍 세계에서 알제리 외교력을 회복 및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헬 문제에 있어도 큰 변화가 필요했다. 독립 이후 처음으로 2010년 4월, 국경 안보를 위해 알제리는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와 알제리 국경 밖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협의체인 합동참모회의(Comité d'état-major opérationnel conjoint, CEMOC)를 알제리 남부에 있는 타망가세트(Tamanghasset 혹은 Tamanrasset)에서 창설했다.¹⁶⁾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알제리 국경 안보 불안은 더는 알제리 혼자만의 힘으로 방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탈냉전 이후, 사헬 지역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의 테러 집단들이 활동하며 국경 지역을 통제하고 지역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둘째,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 구시대적인 비동맹주의로는 알제리의 대외신뢰와 지역 패권 장악이 어렵다. 반면, 경쟁국이자 적대 국가인 모로코는 빠른 정치·경제적 개혁을 통해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사헬에서도 주요 협력 국가가 되었다. 더욱이 2009년 모리타니와 모로코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알제리가 지역 동맹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확실히 비생산적이며 어떤 경우에도 알제리의

16) CEMOC에 관해서는 4장 2절 참조.

불간섭 원칙과 양립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알제리는 심각한 안보 문제에 직면한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 직접적인 군대 파견 대신 해당 국가에 군 장비와 물류 및 훈련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당화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알제리의 입장이고 CEMOC에 가입한 국가들은 알제리의 불확실한 사헬 정책을 비난한다. 물론 알제리의 사헬 대외정책은 지하디스트 단체 활동과 그 영향력이 알제리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알제리에 기여한 바는 있다. 예컨대, 테러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아프리카 협약, 1994년 아프리카 간 관계 행동 강령 선언, 1999년 알제(Alger) 협약 추가 의정서,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아프리카 모델법 및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아프리카연합 정상 회의의 선언 등의 노력이다. 하지만 이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군사적 방법이 아닌 정치적·법적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다.

3. 탈고립주의와 다자외교(2011-2020)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인한 튀니지 벤 알리 정권,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 리비아 카다피 정권 등의 붕괴, 피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유입, 알제리 경제 및 금융위기, 사헬 국경의 심각한 안보 불안 등으로 알제리는 대외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Daguzan 2015, 32). 알제리는 마그레브와 사헬지역에서의 외교적 소외와 리더 역할에 필요한 대외정책의 재조정이 절실하다. 이전까지 알제리는 사헬지역 이웃 국가들과 오랜 유대 관계-모로코를 제외하고-덕분에 ‘조용한’ 대외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나 알제리는 자국이 서방 국가의 정치 및 군사 지침을 수행하는 단순한 헌병(Military police)으로 취급되는 것을 주의해왔다(Diawara 2018). 알제리는 이러한 외부 개입의 요인이 사헬-사하라 지역의 불안을 유발하는 무장단체의 증가와 지하디스트 테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2011년 프랑스-영국 그리고 알제리가 반대한 나토(NATO)의 군사적 개입으로 카다피 정권이 붕괴하고,¹⁷⁾ 사헬지역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이용해 무장단체와 지하디스트 테러의 활동이

극심해졌다고 본다. 또한, 리비아와 말리에서의 반복되는 프랑스의 군사 개입으로 알제리 내에서는 반(反)프랑스 정서가 확산했다(Hallas 2019). 리비아 사태 이후, 더 불안해진 국경 안보 때문에 알제리 대외 정책 우선 목표는 리비아와 말리의 불안을 억제하고 이러한 불안이 자국 내로 영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인도주의적 개입’의 명분으로 프랑스 지원군이 자국 국경 근처에 배치되는 구실을 주지 않는 것이다(Anouar 2013).

알제리는 오랫동안 마그레브와 사헬지역에서 지하디스트에 맞서 싸웠다는 점에서 지중해와 아프리카 지역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예상치 못한 리비아의 붕괴 및 혼란과 지하디스트의 빠른 확산은 알제리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Mesdoua 2014, 6). 특히 AQMI 테러에 직면한 대부분 사헬 국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서로 달리하면서 공동작전에 필요한 이니셔티브마저 분산되거나 조정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 3년 동안 알제리는 사헬 안보를 위해 자국군을 파견하지 않았다(Oguelemi 2018). 반면, 부테플리카는 남부에서 지하디스트 단체 활동과 확산 저지를 위해 알제리가 테러와의 국제적·지역적 투쟁을 통해 대외정책을 강화했다. 예컨대, 알제리는 튀니지와 국경 안보 및 밀수 활동 통제에 관한 조치와 정보 교환을 위한 양자 협력을 강화했고, 대테러 전술에 필요한 안보군 훈련을 위해 튀니지를 직접 지원했다. 하지만 알제리가 사헬 안보 확립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적다.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G5 사헬이 창립된 이후, 마그레브와 사헬에서의 알제리 입지는 줄어들고, 이웃 국가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다.

알제리는 지난 10년간 말리, 차드, 니제르, 리비아, 모리타니 등에 특수부대 창설과 군 장비 인프라를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했다. 또한,

17) 2011년 3월 17일 유엔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승인했다. 나토의 군사적 개입은 인도주의적 수단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바탕으로 한다. 이는 내란 당사국이 평화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때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조치다.

2012년 아프리카 10개국에 30억 달러, 2013년 15개국에 9억 달러 채무를 변제했다. 특히 알제리는 말리에서 2015년 4월 바마코(Bamako) 협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알제리는 말리의 안정에 있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했고, 최근에는 전투 작전에 필요한 53대의 군차량 및 수송 차량을 말리 정부에 기증했다.

하지만 부테플리카의 집권 연장 선언(5선), 경제 불황의 장기화, 극심해지는 지하디스트 테러 위협 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만은 ‘히락’(Hirak) 국민 저항 운동으로 이어졌다.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하자 부테플리카는 2019년 4월 사임하였다. 대선에서 테분(Abdelmadjid Tebboune)이 1차 투표에서 58.15% 지지율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테분 대통령이 부테플리카 정부에서 장관과 총리를 역임한 측근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불신하고 있다. 선거 결과 이후에도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TSA 2020).

테분 신정부는 이전 외교 노선을 바탕으로 지역 갈등과 위기 해결을 위해 협상과 대화를 강조했다. 이는 이전 리더 국가로서의 알제리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주로 리비아, 말리, 서사하라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¹⁸⁾ 테분 대통령은 2020년 1월 리비아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수상 마르켈(Angela Merkel)이 주최한 베를린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알제리는 리비아 폭력 사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비난하고, 리비아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는 유엔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또한, 2020년 9월 제75차 유엔 정기 총회에서 말리 상황과 관련해 말리 경제와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을 위한 ‘알제 프로세스 협정’을 존중

18) 테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 팔레스타인과 서사하라의 경우처럼 점령지에서의 적대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https://atalayar.com/fr/content/le-maroc-accuse-lalg%C3%A9rie-d%C2%AB-alimenter-le-s%C3%A9paratisme-%C2%BB-et-de-d%C3%A9tourner-des-ressources-pour-\(최종검색일: 2021/04/12\).](https://atalayar.com/fr/content/le-maroc-accuse-lalg%C3%A9rie-d%C2%AB-alimenter-le-s%C3%A9paratisme-%C2%BB-et-de-d%C3%A9tourner-des-ressources-pour-(최종검색일: 2021/04/12).)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Algérie Presse Service 2020a).

테분 정부는 그동안 국제적 혹은 지역적으로 고립된 알제리 대외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2020년 10월 미 국방부 장관 에스퍼(Mark Esper)의 방문은 2006년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 이래 14년 만에 알제리가 국제사회의 다시 복귀하는 신호탄이다.

이후, 사헬 문제에서는 테러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2020년 2월 알제리는 주변 국가 특히 사헬지역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연대개발협력기구(Agence algéri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pour la solidarité et le développement, ALDEC)¹⁹⁾ 창설을 제의한다. 알제리는 자국 국경의 불안 증가가 리비아 문제 해결 및 사헬 안보와 개발을 위한 유엔의 비효율적인 개입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알제리의 ALDEC 창설 목표는 사헬 국가에 대한 원조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알제리가 사헬 안보와 관련하여 서사하라 문제 해결을 서사하라 국민투표로 주장하고 있어서 다른 마그레브와 사헬 국가의 협력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헬 문제가 모로코와의 협력과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헬 문제에 대한 공조 불가능성은 장기화한다(이한규 2020, 88-90).

알제리와 ECOWAS 간 경제와 안보 및 정치 분야에 관한 협력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한 것도 테분 정부가 들어선 이후다. 문제는 서사하라의 갈등을 알제리가 탈식민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사하라 문제를 국제법 적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및 모로코와의 접근과 상반되고 있다.

테분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지역 강국’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다. 이에 대해 테분 대통령은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야 하며, 능력과 미래에 자신이 있는 알제리”를 강조한다(TSA 2020). 하지만 신정부는 당분간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에 충실할 것이다. 즉, 국가의 주권, 독립성 및 완전성에 대한 존중, 국가 내정 불간섭, 이

19) Algeri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olidarity and development.

웃 국가에 대한 존중, 평화로운 분쟁 해결 및 정당한 원인(soutien aux causes justes)에 대한 지원 등이다.

따라서 알제리 외교정책은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주권 확립, 안보 및 개발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신정부는 아프리카 특히 사헬지역과 마그레브 이웃 국가에 대한 알제리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외교정책의 주요 방향과 우선순위를 새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Algérie Presse Service 2020b). 따라서 테분 정부의 대외정책은 알제리가 균형적인 지역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실용주의와 국가 이익 보존을 위해 외국 파트너와의 폭넓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헬 안보에 대한 테분 정부 대외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외군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이다. 테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알제리 군대가 이웃 국가 문제에 개입할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을 언급했지만(Staff 2020), 자칫 국내 야당과 시민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G5 사헬과 FC-G5S 활동이 사헬 안보 정책에 대한 알제리 변화를 압박하고 있어서 테분 신정부의 대 사헬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IV. G5 사헬 안보와 알제리 입장

알제리의 소극적인 사헬 안보 정책은 주변 국가 즉, G5 사헬 국가는 물론 지하디스트 격퇴에 군사적 협력을 함께 하고자 했던 미국을 불편하게 했다. 반면 프랑스는 바르칸(Barkhane) 작전을 통해 군사적 개입의 정당화뿐만 아니라 영향력 유지가 가능한 G5 사헬 창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알제리와 사헬 국가들은 ‘공동의 위협’(Common threat)에 대하여 인지하지만, 이러한 위협을 일으키는 ‘공동의 적’(Common enemy)에 대해서는 상충한다. 예컨대, 말리 정부는 주적을 지하디스트를 포함한 모든 무장단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ECOWAS 회원국 일부와 알제리는 AQMI 같은 지하디스트로 한정한다(이한규 2020, 48). 따라서 사헬 안보를 위한 공동전략은 처음부터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G5 사헬

출범은 비록 알제리가 불참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지역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Oguelemi 2018, 137).

1. G5 사헬 출범과 사헬 안보

아프리카 다수 국가는 2011년 리비아에 대한 NATO의 개입과 2012년 말리 사태에 대한 프랑스 개입이 지하디스트에 테러 명분을 주어 사헬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여긴다(Oguelemi 2018, 58). 그러나 반정부군과 지하디스트의 테러로 심각한 안보 위기에 있는 사헬 국가 대부분은 AU와 ECOWAS의 개입으로는 자국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 외부의 개입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최근 지하디스트 테러가 종전처럼 국경 지역이 아닌 부르키나파소 도시 한복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 시설과 종교인 대한 테러로 확대되고 있어서 G5 사헬 회원국들은 사헬이 ‘제2의 아프가니스탄’ 혹은 ‘제2의 시리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Laurent 2013).

G5 사헬은 테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전략이자 지역통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출범했다. 프랑스의 지지와 지원으로 2014년 창설한 G5 사헬의 첫 번째 목적은 테러에 대한 공동대처이고, 둘째는 적극적 평화의 방법으로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개발을 통해 국경 취약지역 주민의 사회 안정과 인간 안보 확립이다. 이러한 목적은 4가지로 구체화한다. 첫째는 회원국의 개발과 안보 환경 보장을 통해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고, 테러리즘, 범죄조직, 밀매, 인신매매 등을 근절한다. 둘째는 회원국 간의 개발과 안보 동맹으로 국가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에 의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정치참여와 인권을 보호한다. 셋째는 취약한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환경을 개선한다. 넷째는 통합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협력을 통해 도로, 에너지, 통신 등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 간의 교환경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이한규 2020, 50).

기능적 측면에서 G5 사헬은 정부 간 ‘느슨한’ 형태로 새로운 협력 관행을 확립하고 제도를 현실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여러 기구를 운용하지만, ‘내정 불간섭’을 근본으로 한다(Najim 2018, 44-45). G5 사헬 출범은 안보 토착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2012년 말리 중앙정부가 반군에 의해서 힘없이 전복되었을 때, 유엔과 ECOWAS보다는 프랑스의 개입으로 반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헬 5개국의 ‘안보 토착화’ 혹은 ‘지역화’(Regionalization)는 G5 사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다. 아프리카 분쟁 예방 혹은 반테러를 위한 ‘안보 토착화’는 1993년 소말리아 사태 해결에 대한 미국과 유엔 개입의 실패 그리고 1994년 르완다 사태를 경험으로 유엔과 AU가 ‘지역 차원의 해결’을 장려해온 오래된 과제다(이한규 2020, 55).

사헬 국가들은 민족, 토지, 문화, 종교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전체적이고 조율된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사헬 5개국의 총 국경선은 약 8,562km다. 군사 인프라가 미비하고, 정보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않은 5개국이 테러 단체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국경을 각 회원국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한 지는 오래다. 더욱이 반군과 지하디스트가 초국경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범사헬’(Pan-Sahel) 안보 인프라 구축만이 사헬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테러 지역이 사헬 남부지역으로 확대되고, 테러 대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서 국가 간 강력한 협력이 점차 요구된다(Aubry 2019,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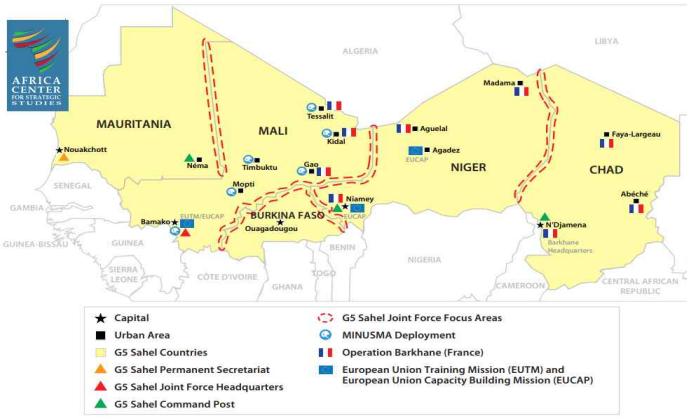
이를 위해 G5 사헬은 두 가지 차원에서 안보 정책을 구상한다. 하나는 회원국의 자정 노력으로 테러 활동에 필요한 밀매, 불법 이민에 대한 자체적인 방지 및 방어 능력을 갖춘다. 이에 안보협력플랫폼(PCM S)²⁰⁾, 사헬안보대학(CSS)²¹⁾, 사헬 위협 분석 및 조기 경보 센터(CSAMAP)²²⁾, 감시 및 개입을 위한 신속대응군(GAR-SI)²³⁾, 경찰 아카

20) Plateforme de Coopération en Matière de Sécurité (Security Cooperation Platform).

21) Collège Sahélien de Sécurité(Sahelian Security College).

데미(Académie de police)²⁴) 등을 운영한다. 다른 하나는 G5 사헬 차원의 안보 토착화로 회원국이 공동 참여하는 초국경군사파트너십 (PMCT)²⁵), 사헬국방대학(CDG)²⁶), FC-G5S가 있다.

<그림 2> FC-G5S 활동지역



출처: africacenter.org

현재 G5 사헬 차원의 안보 토착화는 2017년에 창설한 FC-G5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경 지역 안보 현실화를 위해 FC-G5S는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부터 5년 동안 FC-G5S 역량 강화를 위해 프랑스와 협동작전으로 국경 지역 안보를 강화한다. 두 번째 단계는 반테러와의 전쟁에서 FC-G5S가 자체적인 작전을 통해 다른 지역에 배치되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 22) Centre Sahélien d'analyse de menace et d'alerte précoce(Sahelian Center for Threat Analysis and Early Warning).
- 23) Groupes d'Action Rapides-Surveillance et Intervention au Sahel(Rapid Action Groups - Surveillance and Response in the Sahel).
- 24) Police academy
- 25) Partenariat militaire de coopération transfrontalière(Military partnership for cross-border cooperation).
- 26) Collège de Défense Sahel(Sahel College of Defense).

FC-G5S 창설은 2017년 아프리카연합의 평화·안보이사회(Peace and Security Council, PSC) 결의 679호와 유엔안보리 결의 2359호를 근거로 한 ‘군사적 연합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7년 750명의 군·경찰로 출발하였으나 5,000명의 합동군으로 증원 중이다. FC-G5S는 세 개의 방위 거점을 중심으로 국경 지역의 통제 및 무장단체와 지하디스트의 소탕을 목적으로 총 7개 대대로 편성한다. 중부 합동군은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를 담당하고, 서부 합동군은 말리, 모리타니, 동부는 니제르, 차드가 맡고 있다.²⁷⁾

이처럼 최초의 군 연합 형식인 FC-G5S가 출범하였지만, 군 인프라와 정보 수집 및 교환체계가 미흡하여 독자적인 군사작전 수행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 군사작전은 프랑스의 바르칸 군과의 연합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알제리뿐만 아니라 G5 사헬 내에서도 FC-G5S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하지만 FC-G5S가 관리하고 통제할 지역이 광범위하고 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이한규 2020, 89). 그러나 사헬과 마그레브 지역에서 군사 대국이며 사헬 국경을 관리·통제해야 하는 알제리의 G5 사헬 참여가 가시화 되면 사헬 안보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에 될 것이다.

2. 알제리의 사헬 안보 정책 딜레마

알제리는 리비아 붕괴와 튀니지 ‘재스민 혁명’의 영향으로 국내 긴장과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외 안보 문제에 민감해졌다(Poupart 2019, 105; Revue Hérodote. 2019). 사헬은 지정학적으로 알제리 남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알제리의 남부 국경은 말리, 니제르, 모리타니 국경과 마주하고 있고, 이 국경 지역에는 지하디스트 단체뿐만 아니라 투아레그 혹은 기타 반군단체가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하디스트 단체의 발원이 알제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27) 각 대대는 약 650명 수준으로 편성된다.

사헬 안보 불안에는 알제리의 일부 책임이 있다. 따라서 알제리의 안보 정책은 사헬 안보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Laurent 2013).

알제리의 사헬 안보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는 사헬에서의 AQMI 활동으로 인한 말리와 니제르에 인접한 자국 국경 안보 불안과 이로 인한 국내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부 투아레그 민족의 봉기 대부분은 지하디스트와 연계되어 있다. 알제리는 말리에서 일어나는 투아레그 민족의 아자와드(Azawad) 분리 독립운동이 알제리 남부의 국경 불안과 알제리 북부 카빌리(Kabylie) 지역에서의 베르베르 반란 재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Poupart 2019). 따라서 알제리 남부에서의 투아레그 반란이 카빌리에 영향을 미쳐 알제리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말리의 투아레그 반정부 활동은 터키와 이란에서의 쿠르드 민족의 독립 또는 자치 요구와 상당히 유사하다. 터키와 이란에서 쿠르드 민족의 독립이나 자치가 자국의 쿠르드 반군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말리에서 투아레그 반란 성공이 알제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Larémont 2013).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알제리는 2010년 모리타니아, 말리 및 니제르와 함께 CEMOC를 창설하였고, 이를 더 확대하여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차드 및 세네갈을 포함하는 ‘범 사헬 군사적 협력 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 기구 목적은 군사 및 안보 작전을 촉진하고 구성원(알제리, 모리타니, 말리 및 니제르) 간의 정보 및 병참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만 5천 명의 합동군을 구성한다. 하지만 이 기구는 해당 국가들의 안보 상황을 살펴보고, 이 지역에서 지하디스트 위협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 결국, CEMOC는 지하디스트 단체와의 전쟁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주목적이고, 이를 통해 외부의 개입을 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디스트 단체 격퇴에 필요한 군대는 동원되지 않았다. 물론 CEMOC를 위해 알제리 정부는 7년 동안 차드, 말리, 니제르, 모리타니, 리비아 5개국에 1억 달러의 재원으로 10개의 특수부대 훈련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합동 군사작전은 없었다.²⁸⁾ 예를 들어, 2012년 말리 위기에서 사

태가 일어났을 때, CEMOC는 지하디스트가 북부 말리를 점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둘째, 리비아 사태가 알제리 반대에도 불구하고, NATO와 프랑스군의 개입으로 해결되면서 마그레브 지역과 사헬지역에서의 외국 군대, 특히 사헬 자원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영향력이 커졌다.²⁹⁾ 알제리가 국내문제와 리비아 국경 안보에 치중하고 있는 동안, 프랑스는 2013년 세르발(Serval)과 2014년 바르칸 군사작전을 통해 말리 위기를 해결하였고, 지하디스트에 의해 정복되었던 말리의 일부 도시(가오, 톰북투, 키달 등)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사헬 국가들은 자국의 위급한 안보 문제를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프랑스에 의지하는 결과가 되었다(Alalade 2012).³⁰⁾ 그 결과, 알제리가 빠진 G5 사헬 지역 협력이 프랑스의 지지와 지원으로 출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헬 안보를 담당할 FC-G5S가 조직됨으로써 사헬에서의 알제리의 영향력은 점차 줄고 있다.

알제리의 G5 사헬 참여 거부는 첫째, 알제리 국경 근처에서의 외국 군 특히 프랑스군과 후자의 지원을 받는 FC-G5 사헬 군사작전으로 인한 국경 불안과 이로 인한 국내의 정치·사회적 불안과 반정부 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G5 사헬이 회원국의 전투력과 기술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가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알제리는 프랑스가 G5 사헬을 이용해 자신들의 국경

28) 타국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거부한 알제리는 이웃 국가 리비아와 튀니지 사태에서는 예외다. 2014년 5월, 니제르에 있는 미 해병대 및 프랑스 특수부대와 협력하여 1,500명의 알제리 병력을 리비아에 파견했다. 목표는 알제리 일부 마을에서 AQMI를 소탕하고, 리비아 남부 Sebha(세바) 지역의 훈련 캠프를 파괴하는 것이다(Perouse de Montclos 2020). 또한, 2013년 알제리-튀니지 안보 협정에 따라서 2014년 8월, 테러 집단소탕을 위해 6,000명의 튀니지군과 8,000명의 알제리군의 공동작전이 Châambi(샴비) 산에서 진행되었다.

29) 알제리는 리비아에 대한 NATO와 프랑스의 개입을 새로운 제국주의의 '총포 외교'라고 비난했다.

30) ECOWAS와 아프리카연합, 알제리의 지원을 통한 사헬 안보 상황은 더는 보강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였다. 이에 니제르 대통령 이수푸(Mahamadou Issoufou)는 유엔안보리에서 프랑스군의 말리 개입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근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여긴다(임기대 2019, 144). 둘째, 프랑스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G5 사헬로 인해 알제리가 창립한 지역 방위 기구인 CEMOC가 무력화되었다고 여긴다. 알제리는 CEMOC를 통해 리비아, 말리, 니제르 더 나아가 튀니지와와의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와 정책, 재정, 군사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양자 협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외국 군대의 개입을 저지하려 했다(이한규 2020, 89). 셋째, 모로코와의 갈등 요인인 서사하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프랑스가 모로코에 손을 들어 주고 있다.³¹⁾

물론 알제리가 사헬 문제에 경직된 정책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다. 2014년부터 유럽연합의 이슬람 테러 작전에서 일부 국경을 개방하였고, 알제리군이 보조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5년 3월의 알제 협정처럼 정치적 접근방식을 선호했다. 예컨대, 알제리는 남부 국경에서의 유럽연합과 프랑스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 비난했지만, 프랑스 군용 항공기의 자국 상공 이용을 허용했다. 특히 알제리 보안군은 2016년부터 지하디스트 소탕과 이주민의 유럽 이동 저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동원되었다. 또한, 알제리는 리비아 군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프랑스 당국에 전달했다(Benderra 2020).

프랑스 및 유럽연합 그리고 사헬 국가들은 군사 강대국이고 지하디스트 단체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알제리 없이는 사헬에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 사헬이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알제리가 핵심적인 전략 행위자로 나서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지하디스트들이 프랑스의 군사적인 개입을 빌미로 ‘사헬 민족주의’ 항거를 정당화하면서 부르키나파소, G5 사헬 기관, 기독교 지역 등에 다공적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알제리가 지역 패권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헬 안보에 적극적인 참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문제는 한편으로 알제리 내의 반(反)프랑스 시위가 격화되어 반정부로 나타날 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헬 안보 불안이 커지면 알제리

31) 모로코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사실상 관리하는 서사하라(Western Sahara)는 알제리가 폴리사리오 전선에 피난처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경 지역에서의 프랑스군 영향력을 강화해 줄 명분이 발생한다. 게다가 점점 악화하고 있는 사헬 안보 불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외정책 변화 필요성이 알제리 내에서도 요구되고 있다.³²⁾

V. 결론

알제리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사헬-사하라 아프리카 국가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로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교차·혼성하는 지역이며 아프리카 지역 안보의 핵심이다. 하지만 사헬 안보와 관련한 알제리 정책은 전반적으로 자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으로 유지하였던 주변 국가와의(모로코 제외) 관계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부테플리카 사망 전까지 알제리의 대외정책은 친비동맹 혹은 제3세계 정책과 반프랑스 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테분 신정부 들어서 기존 대외정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전 알제리는 유리한 경제적 자원과 지정학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지정 전략적 비전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여전히 사헬 문제에 대한 알제리 외교의 맹점은 ‘국가 외교(national diplomacy)’가 아니라 ‘정권 외교’를 지향했다는 것이다. 이웃 국가 대부분은 알제리가 국내 테러 위협을 정치적으로 영속화하고, 외부 군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 게임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Aïda Ammour 2012).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외교 원칙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기득권을 가진 엘리트들은 세계화의 영향과 아랍의

32)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2018년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말리와 니제르에서 수행한 보고서에서 사헬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알제리 역할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캄봉(Cambon) 의원은 4월 18일 상원 연설에서 알제리도 프랑스도 프랑스군이 사헬-사하라 스트립에 끌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알제리와 더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알제리 군대 규모를 보면, 알제리가 사헬 지역 안보에 더 많이 관여해야 하는 “필수”국가라고 했다(Sénat Français 2018).

봄이 지역 프레임워크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경제발전과 사헬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비전 없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외교를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외교의 실패다. 알제리는 새로운 지역 균형을 받아들이기를 꺼렸고, 카다피 정권의 붕괴로 인한 힘 공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불간섭’이라는 기존 솔루션을 그대로 적용했다. 20세기 외교의 주목적은 ‘국가 생존’이라는 ‘핵심적 이익’의 추구가 절대적이었다면, 21세기 외교정책 목적달성은 ‘중범위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발전과 지역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없이 안정된 국가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이한규 2009). 그럼에도 알제리 대 사헬 안보 정책은 지역협력에 대해 소극적이다.

알제리는 또한 사헬의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서구와의 단독 협상국으로서 대테러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알제리의 일방적 접근과 사헬 이웃 국가에 대한 후원 전략은 지금까지 역효과를 냈다. 결과적으로 알제리는 주요 안보 회의에 초대되는 대신 사헬 이웃 국가에 의해 그 어느 때 보다 고립되어 있다.

사헬 안보 확립을 위한 향후 알제리 안보 외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현재 알제리 사헬 안보의 핵심은 주변국의 심각한 안보 불안과 압박, 지하디스트들의 테러 대상과 활동 범위 확대, 프랑스의 개입과 영향력의 확대 등에 대한 적절한 외교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는 향후 지중해, 마그레브, 사헬-사하라에서의 자국 입지를 강화하는 주요 변수다. 사헬의 지역적 불안정이 지속하고, 위협의 성격이 불시에 변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역협력이 필요하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는 자신이 받는 압력과 이를 해결할 새로운 노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사헬-사하라 국가 대부분은 이슬람 문화권이라서 보편적 이해관계가 상존한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강대국 알제리는 주변 국가와의 다자협력력을 통해 주변 국가의 역량 개발과 지역협력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공동의 적’에 대한 불일치로 지역 대응이 분열되었다. 이러한 차이와 그에 따른 불일치는 각

당사자가 위협을 느끼는 방식과 결정하는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군사 강국 알제리는 아프리카 대륙 혹은 사헬지역 수준에서 안보 협력 및 반테러 메커니즘 개발 및 구축에 더 적극적이고, 주변 국가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정책을 채택했으며, 자체 글로벌 대테러 포럼을 포함한 모든 국제 행사에서 테러의 초국적 협력을 강조했다(Gherieb 2017). 알제리는 현재 글로벌 대테러 포럼의 사헬지역 역량 강화 실무그룹 공동 의장국이다.

셋째,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개방적으로 접근하여 사헬 안보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적 공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알제리와 프랑스 간의 문제는 알제리 차원을 넘어 범사헬 차원에서 접근할 때 사헬 안보를 중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외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테분 신정부는 주변 국가와의 우호 관계 재정립과 지역협력에 대한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헬 안보 문제는 마그레브 및 서아프리카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알제리의 지전략 역할을 가능하는 지렛대다. 더는 알제리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무장단체와 지하디스트 테러로 인한 안보 불안을 ‘불간섭 원칙’으로 회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알제리의 G5 사헬 참여가 향후 사헬-사하라 안보의 핵심이고, 세네갈과 모로코가 참여한다면(G7 사헬) 새로운 ‘지역군사협력’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알제리의 과감한 사헬 안보 정책 변화는 오히려 외부 개입의 명분을 줄여주고, 사헬에서 점차 확산하고 있는 무장단체와 지하디스트에 대한 정책의 적실성을 높여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태수. 2014. “2001년 이후 알제리-미국관계: 지속성과 변화.” 『국제지역연구』 18(4), 119-138.
- 김희정·황의갑. 2013. “마그레브 지역에 대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외교 정책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3(3), 17-40.
- 남호엽. 2011. “글로벌 시대 지정학 비전과 영토교육의 재개념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3), 371-379.
- 오창룡. 2016. “‘아랍의 봄’ 이후 알제리의 대(對) EU 외교정책 변화.” 『지중해지역연구』 18(4), 75-97.
- 이한규. 2009.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통해서 본 마그레브에 대한 외교 전략과 과제.” 『국제지역연구』 13(3), 343-366.
- . 2020. “사헬지역의 정치·경제 안보 고찰과 한국의 외교적 시사점: G5 Sahel을 중심으로.” 『외교부 연구용역』 1-116.
- . 2020. “한국의 마그레브 연구 동향.” 『동서연구』 32(2), 91-125.
- 임기대. 2019. “‘마그레브-사하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안보와 평화를 위한 프랑스의 노력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21(1), 133-158.
- 전웅. 1997. “地政學의 기원과 발전과정.” 『人文科學』 5, 211-231.
- Abdelkader, Abderrahmane. 1996. “De quoi la politique étrangère de l’Algérie est-elle le nom ?” in Robert Malley. *The Call from Algeri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ïda Ammour, Laurence. 2012. “La coopération de sécurité au Maghreb et au Sahel: l’Ambivalence de l’Algérie.” *Bulletin de la sécurité africaine*. no. 18, 1-8.
- Anouar, Boukhars. 2013. “Algerian Foreign Policy in the Context of the Arab Spring.”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Vol. 6, 17-21.
- Aubry, Ayrton. 2019. *Le G5 Sahel: Le Nouveau Régionalisme*

- Sécuritaire en Afrique de Nord-Ouest*. Paris: L'Harmattan.
- Belkaïd, Akram. 2009. "La diplomatie algérienne à la recherche de son âge d'or." *Politique étrangère*. no. 2, 337-344.
- Biad, Abdelwahab. 2013. "La construction du Maghreb au défi du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de l'Union européenne." *L'Année du Maghreb*. 11, 103-124.
- Claudot-Hawad, Hélène. 2006. "Sahara et nomadisme. L'envers du décor." *Revue du monde musulman et de la Méditerranée*. 3, 211-244.
- Daguzan, Jean-François. 1993. "Les rapports franco-algériens, 1962-1992. Réconciliation ou conciliation permanente?" *Politique étrangère*. no. 4, 885-896.
- . 2015. "La politique étrangère de l'Algérie: le temps de l'aventure?" *Politique étrangère*. no. 3, 31-42.
- Ekanza, Simon-Pierre. 2014. *L'Afrique et le défi du développement: Des indépendances à la mondialisation*. Paris: L'Harmattan.
- Flint, C. 2006. *Introduction to Geopolitics*, Routledge. 한국지정학 연구회 역. 2007.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길.
- Grimaud, Nicole. 1984. *La Politique étrangère de l'Algérie*. Paris: Khartala.
- Kandel, Maya. 2017. "Le dernier front de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La militarisation de la politique africaine en Afrique." in Peer de Jong(ed.). *G5 Sahel, une initiative régionale pour une nouvelle architecture de paix*, Paris: L'Harmattan.
- Keenan, Jeremy H. 2012. "Politique étrangère et guerre mondiale contre le terrorisme dans la reproduction du pouvoir algérien." *Revue Tiers Monde*. no. 210, 31-50.
- Laurent, Samuel. 2013. *Sahelistan: de la Lybie au Mali. Au coeur du nouveau Jihad*. Paris: Seuil.

- Mohsen-Finan, Khadija. 1999. “Le règlement du conflit du Sahara occidental.” *Politique africaine*. 4. no. 76, 95-105.
- Najim, Elhadj Mohamed. 2018. “Paix, Sécurité et développement au Sahel: Tout est lié” in Peer de Jong(ed.). *G5 Sahel, une initiative régionale pour une nouvelle architecture de paix*, Paris: L’Harmattan.
- Newman, David(ed). 1996. *Boundaries, Territory Postmodernity*. London: Frank Cass.
- Oguelemi, Brahim. 2018. *La souveraineté des états du Sahel face aux défis sécuritaires*. Paris: L’Harmattan.
- Perouse de Montclos, Marc-Antoine. 2020. *Une guerre perdue: La France au Sahel*. Paris: JC Lattès.
- Poupart, Pauline. 2019. “Quand la puissance se disperse : les relations entre le Sahara-Sahel et le Maghreb depuis la chute du colonel Kadhafi (2011-2018).” *Hérodote*. no. 172, 102-121.
- Revue Hérodote. 2019. *Géopolitique du Sahel et du Sahara*. Paris: La Découverte.
- Sellier, Jean. 2003. *Atlas des peuples d’Afrique*. Paris: Découverte.
- Yacono, Xavier. 1992. *Histoire de la colonisation française. Que sais je?* t. 452, Paris: PUF.
- Zoubir, Yahia H. 2009. “The United States and Maghreb-Sahel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Vol. 85, 977-995.

인터넷 자료

- Algérie Presse Service. 2020a. “Retour de la diplomatie algérienne, cheval de bataille du président Tebboune.” <https://www.aps.dz/algerie/114829-retour-de-la-diplomatie-algerienne-cheval-de-bataille-du-president-tebboune>(최종검색일: 2020/12/20).
- 2020b. “Algérie adoptera une politique étrangère

"dynamique et proactive." <http://www.aps.dz/algerie/101415-plan-d-action-du-gouvernement-l-algerie-adoptera-une-politique-etrangere-dynamique-et-proactive>(최종검색일: 2020/12/20).

Alalade, Osuolale. 2012. "Insecurity in the Sahel and the Future of West Africa." <https://africapeacesupport.wordpress.com/2012/08/01/insecurity-in-the-sahel-and-the-future-of-west-africa/>(최종검색일: 2021/02/15).

Benderra, Omar. 2018. "Algeria, between Arab uprisings and destabilization in the Sahel," <https://algeria-watch.org/?p=3053> (최종검색일: 2021/01/05/).

-----, 2020. "L'Algérie entre crise interne et enjeux géostratégiques," <https://lequotidienalgerie.org/2020/03/05/lalgerie-entre-crise-interne-et-enjeux-geostrategiques/>(최종검색일: 2020/03/31).

Boutaud, Pierre. 2007. "Algérie et Sahel, les Etats-Unis comblent un vide sécuritaire," <https://www.ege.fr/infoguerre/2007/01/algerie-et-sahel-les-etats-unis-comblent-un-vide-securitaire> (최종검색일: 2021/02/21).

Diawara, Moustapha. 2018. "Graine de vérité : l'Algérie et la force G5 Sahel," <https://mali-web.org/crise-malienne/graine-de-verite-lalgerie-et-la-force-g5-sahel>(최종검색일: 2021/01/05).

Gherieb, Hakim. 2017. "US-Algeria Cooperation in Transnational Counterterrorism."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us-algeria-cooperation-transnational-counterterrorism> (최종검색일: 2021/02/15).

Hallas, Lyas. 2019. "Ce qui nourrit le ressentiment antifrçais des Algériens." <http://bourse-dz.com/ce-qui-nourrit-le-ressentiment-antifrancais-des-algeriens/>(최종검색일: 2021/02/21).

Larémont, Ricardo René. 2013. "After the Fall of Qaddafi: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Consequences for Libya, Mali, Niger, and Algeria." <https://www.stabilityjournal.org/articles/10.53>

- 34/sta.bq/(최종검색일: 2020/12/12)
- Mesdoua, Imad. 2014. “Algeria: North Africa’s Reluctant Policeman.”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algeria-north-africa%E2%80%99s-reluctant-policeman-11364>(최종검색일: 2020/12/15).
- Sahel-Elite. 2018. “L’Algérie face aux trafics et au terrorisme au niveau du Sahel (contribution).” <https://httpsahel-elite.com/2018/08/23/lalgerie-face-aux-trafics-et-au-terrorisme-au-niveau-du-sahel-contribution/>(최종검색일: 2020/12/13).
- Sénat Français. 2018. “Pas de paix et de stabilité au Sahel sans l’Algérie.” <http://www.lestrepublikain.com/index.php/actualite/item/9008931-pas-de-paix-et-de-stabilite-au-sahel-sans-l-algerie>(최종검색일: 2021/02/21)
- Staff, Reuters. 2020. “U.S. defense chief’s rare Algeria visit points to Sahel region threats.” <https://www.reuters.com/article/uk-usa-algeria-esper-idUKKBN26M797>(최종검색일: 2021/02/15).
- TSA. 2020. “Tebboune fixe les grandes lignes de la politique étrangère de l’Algérie.” <https://www.tsa-algerie.com/tebboune-fixe-les-grandes-lignes-de-la-politique-et-rangere-de-lalgerie/>(최종검색일: 2020/12/21).

투고일 : 2021년 5월 13일 . 심사일 : 2021년 5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9일

* 이한규는 프랑스 파리 10대학(Nanterre)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한국 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교수 역임. 현재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공동연구원이며, 주요 논문으로 “한국의 마그레브 연구 동향”, 공역서로는 『아프리카의 역사』, 공저는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외 다수가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Sahel Security Policy of Algeria

Lee, Hankyu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started from a hypothesis in which the geostrategy of Algeria would be a major variable on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in Sahel-Sahara. As the most barren land in the center of the Sahara Desert in Africa, Sahel is complexly interrelated with many issues like anti-government armed group, terrorism by Islamic extremists like AQMI, illegal immigration/refugee, and human/drug trafficking through many countries. As an oil producer and military power, Algeria is facing the border(total 4,279km) with countries like Mali, Libya, Niger, Tunisia. It is also the geopolitical center that not only connects Europe and Africa across the Mediterranean, but also draws the conversion between Islamic culture of Maghreb and Christian culture of sub-Saharan region. Thus, the Sahel security policy of Algeria is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security of West Africa. However, Algeria's security policy towards Sahel failed overall, which is even jeopardizing the traditional relationships with surrounding countries except for Morocco. Without any clear geostrategic vision to establish such realistic diplomatic policies, Algeria's diplomacy towards Sahel issues was not 'national diplomacy', but 'regime diplomacy'. For this reason, Algeria that is not attending the G5 Sahel which could be the core of Sahel security, is isolated by Sahel neighboring countries. Thu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national consensus in the new government by Abdelmadjid Tebboune would become a crucial turning-point of policies towards Sahel.

Keywords : Algeria, Geopolitics, Security Policy, Sahel, G5 Sahel